

역사문화콘텐츠가 기능적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대구도심 사례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in Building Functional Communities: Focused upon the Case of Daegu Downtown

이권희 Lee Gwonhee*, 박종화 Park Jong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various citizens' value recognition through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and the building and working variables of functional communities. This study establishes 3 hypotheses in the large and employs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variance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value recognition factor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individual value, group value, and public value factors; the building and working factors of functional communities are grasped as meeting, interacting, talking, understanding, or empathizing factors; the value recognition differently shows positive impacts on the building and working processes of functional communities; in addition, the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MIT&UE variables were almost all identified by the stages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In consequence, this research suggests the necessities to consider various citizens' value recognition, to identify the impact factors differentiated by policy objectives, and to try policy approaches differentiated by the stages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Keywords: Functional Communities, Urban Regeneration, Cultural Contents, Social Networks, Bridging Social Capital

I. 서론

1. 연구의 배경

Jacobs(1961)는 이미 고전이 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도시는 디자인된 겉모습보다 작동 구조와 작동 과정에 대한 포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도시는 사람과 건물이 촘촘하게 얹히고설켜 다양한 구조를 갖춰야 경

제·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지탱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시문제 해소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공동체 회복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 또한 동일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도시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성찰에서 기인된 것으로, 기존의 천편일률적 재건축과 같은 외형 지향적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공동체 해체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도심공동화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훼손했거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배제한 데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이 그것이

* ATBT Corp. 대표이사(제1저자) | CEO, ATBT Corp. | Primary Author | lgh@atbt.or.kr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교신저자) | Prof.,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 Corresponding Author | hwapark@knu.ac.kr

다. 우리의 경우 그나마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아 가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역개발 방식도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인식 전환에 따라 도시 지역사회에는 교육, 역사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공유하는 사회적 집단이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 집단의 특징은 도시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통해 도시 공동체의 역량을 자생적으로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Coleman(1988)은 이러한 도시 공동체 형성을 기능적 공동체로 분류,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공동체와의 차별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근래 도심재생 과정에서 지역사회 발전전략을 강조하는 연구들(김미영 2015; 이은지, 최현선 2015; 전지훈, 최문형, 정문기 2015; 정규호 2012; 신중진, 정지혜 2013)은 공통적으로 공동체 회복 및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부각되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에 주목하는 지역 발전전략 역시 동일 맥락으로 보인다.

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도심재생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역 역사문화자산이 기능적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심 역사문화콘텐츠의 어떤 속성이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도시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서 문화적 요소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문화시설을 통한 관광과 기업유치 등 도시마케팅에 대한 비판적 접근(오동훈, 오근상 2014; 박은실 2005), 지역문화와 지방자치의 수준 그리고 도시경

쟁력에 대한 분석(류정아 2006), 주민소외와 지역사회 정체성 파괴에 관한 연구(심승구 2012; 박은실 2005) 등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적 요소의 활용 측면에서 도시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주민과의 상호 작용성 강조(박병춘 2012), 물리적 요소와 함께 정신적 요소의 강조(박종관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전지훈, 최문형, 정문기 2015; 이은지, 최현선 2015; 정규호 2012; 양영균 2010) 등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선행 논문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역사문화 자산 활용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계의 상호 작용성과 지속가능성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문화 자산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도심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기능적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재생의 딜레마 상황과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 그리고 기능적 공동체 형성의 상호 작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3.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지인 대구 도심골목은 ‘지붕 없는 야외 박물관’이라고도 불린다. 대구도심에는 대구의 근대 문화유산 134개소 중 64개소, 즉 47.7%가 분포되어 있으며, 지정문화재 18개소 중 17개가 도심에 분포하고 있다(조지현 2007, 11). 대표적으로 달성토성, 경상감영공원, 1906~1907년 철거된 대구읍성 관련 유적과 2.28기념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이 있다. 옛 대구읍성 주변부에는 북성로 구구골목, 약령시 약

전골목, 진골목, 화교종로거리, 뽕나무골목 등 특색 있는 골목들이 소재하고 있다. 대구의 구도심은 일부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00년대 초 옛 도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6.25 전쟁과 같은 국가적 격변기 속에서도 타 도시와는 다르게 도시의 가로, 건축물, 경관 등의 역사문화적 자산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 특히 구도심을 관통하는 북성로와 싹뿔처럼 이어진 골목은 대구 근대 산업 유산의 보고이다. 북성로 초입 향촌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문학, 전쟁문학의 발상지이며, 북성로에 인접해 들어선 연초제조창은 한국근대산업을 이끈 랜드마크적 기능을 수행했으며,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 옛터가 북성로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약전골목은 가장 대구다운 골목으로 1907년 대구 읍성의 남쪽 성곽과 객사가 헐리면서 약재상이 이곳으로 옮겨와 생긴 거리이다. 약전골목과 이어진 진골목은 대구 근대 가옥구조와 옛 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골목 박물관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이권희, 박종화 2014; 2015). 이 같은 환경적 배경에 힘입어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 모색과 더불어 시작된 대구도심 역사문화탐방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2010년 민·관·학 등 5개 기관과 단체에 의해 공동 추진된 이래 학생, 학부모, 교사에 이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등 점차 확산되면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연계된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지역 학생들에게 애郷심을 고취하는 창의인성 체험학습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예술·인물·종교 등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를 접목, 모든 도시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영역으로 활용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조망 지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옛 경상감영 및

대구읍성터, 3.1만세운동길, 대구약령시, 이상화·서상돈 고택,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등은 대구도심의 정체성을 가장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곳들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골목길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이들 주요 조망 지점은 음악, 미술, 연극, 역사재현, 영상체험 등 문화플랫폼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권희, 박종화 2014, 798).

II. 이론적 고찰

본 논문은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이 도심재생 과정에서 신뢰, 규범, 공감, 협력 등을 견인 내지 확장하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역사문화콘텐츠의 기능적 속성은 Coleman(1988)이 언급한 네트워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 공동체 형성 측면과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신뢰가 형성되는 토대인 사회적 관계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인식 내지 가치형성과 별개로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 인식과 기능적 공동체 형성의 연계성 내지 적용성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을 시도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발, 보전, 응용 등 활용단계별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한다.

1. 도심재생의 딜레마 상황에서 역사문화콘텐츠의 역할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도시는 산업화 시대에 부합하는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기능과 생활편익 개선에 치중해 왔다. 2000년대 초입 이미 도시화율이 90% 이상 진행되면서 인구집중 현상의 가속화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의 상실, 환경문제의 야기, 생활의 질 저

하,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에 부합하는 경쟁력의 결여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해 왔다. 더구나 급속한 도시화와 압축적 경제성장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과정에서 기성 시가지보다는 신시가지 내지 신도시 개발이 주된 정책적 관심사였다. 이로 인해 기존 도심의 노후화는 심화되고, 기존 도심 중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전면 철거 이후 신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민간 주도 정비가 이루어졌다(양영균 2010, 98-99; 배웅규 2013, 40-41; 백기영 2013, 13). 결과적으로 도시와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도심재생 방안들이 오히려 건강한 도시공동체 형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도심재생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근래 들어 침체 도시 또는 침체의 징후가 있는 도시영역을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새로운 기능의 창출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도시들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내지 도심재생의 흐름을 보다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현재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재생 내지 도심재생의 출발점에서 있다. 재개발, 재건축, 신규 개발 등에서 관리 중심으로 도심재생 정책 방향의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문화 자산의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강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문화적 행위들이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북돋운다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김미영 2015, 210-213; 백선훈, 라도삼, 노민택, 김은희 외 2008, 127-130). 동일 맥락에서 역사문화콘텐츠에 내재된 문화예술, 역사전통, 교육 및 경제적 측면과 결부된 도심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인식 내지 가치지향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래 들어 역사문화콘텐츠는 도시와 지역의 정책

지표가 되고 있으며 도시의 이미지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활용되는 등 국내외적 관심과 활용 방안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권영상 2011, 240). 역사문화콘텐츠는 도시와 지역의 미래 경쟁력에 중요한, 창조적인 실체로서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 요소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문화 자산을 구성하는 내용물 내지 실체로서 흔히 건물, 시설, 가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권영상 2011, 240).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이란 역사문화콘텐츠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용하는 개발·보존·응용행위 등을 통칭한다. 즉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 또는 기능,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고 응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대상물 그 자체의 정태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성과 시대정신 그리고 보존과 응용의 가치개념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초점이다(이권희, 박종화 2014, 804-80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문화콘텐츠 활용과정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측면과 함께 기능적 측면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2.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과 역사문화콘텐츠의 관계

기능적 공동체 형성이란 교육, 복지, 문화, 종교 등에서 공동의 관심과 흥미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 간 상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이 개념을 특정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전용되거나 활용되는 자원 측면, 그리고 직업, 취미, 학부모회 등 구

성원 간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형성된 모임이나 집단의 속성 측면 등 여러 측면으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Rothman and Tropman 1995; Coleman 1988, 95-120; 정성훈 2013, 311-340; 이지숙 2008, 533-540).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에서 기능적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구성원들은 일정한 지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등을 통해 가치나 규범, 역사, 정체성 등을 공유, 활용, 발전시켜 감으로써 공생적 관계를 유지, 강화시켜 가게 된다(Granovetter 1973, 1360; 김진아 2014, 116).

Coleman(1988)은 보다 구체적으로 종교기반 가톨릭학교와 거주지기반 공립학교 간의 차이를 분석, 기능적 공동체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작용이 풍부하고 부모들 간 완결형 사회연결망(Closure of Social Networks)을 이룬 기능적 지역사회일수록 연결망이 공고해 학교와 사회 내 규범과 제재 기능이 강화되면서 성적과 진학률이 높고, 중퇴율은 낮아진다(이정선 2001, 5 재인용).¹⁾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신뢰와 규범, 자율적 통제력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와 연계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이는 또다시 제2, 3의 부가적 기능을 생성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기본 출발점과 유사 맥락으로 해석된다. 기능적 공동체라는 용어는 지리적 의미와 대비되는 기능적 의미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사회의 특정 기능성에 주목하는 Rothman and Tropman(1995)의 기능적 공동체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종교, 학연, 기타 등으로 형성된 모임과 결속이 참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주변인들의 안전,

복지, 교육적 성취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Coleman(1988)의 기능적 공동체 가설의 맥락을 토대로 분석한다.

도심 역사문화콘텐츠는 대개 장소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도심 건물이나 가로와 결부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대구 구도심에 남아 있는 전근대적인 공간과 구도심에 싹틔줄처럼 퍼져 있는 골목은 마을의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 정체성을 보여 주는 응축된 공간으로 조명되고 있다. 골목은 개인과 이웃의 삶을 매개하고 때로는 복원하는 곳이기도 하며 규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심 역사문화콘텐츠는 그것이 건물이든 가로든 그 자체의 정태적이고 실체적인 의미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가치인식과 그 영향이 핵심적이다.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과정에서 기능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작동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삶의 질적 수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메커니즘은 입체적이고 동태적인 관계로 표출될 것이다. 어떤 하나의 소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표면적으로 가정했던 목적 이상의 부가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 적용관계는 선순환적 고리 형태 내지 본 논문의 초점인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과 작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기능적 공동체가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공동의 관심과 결속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 도심 골목 역사문화콘텐츠는 장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움 틔우는 기능적 자원으로서의 측면까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1)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순환구조를 이루는 완결형 사회연결망의 전형적인 사례를 이루는 예는 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친구관계인 경우임. 대칭되는 개념으로 Coleman(1988)은 단절형 사회연결망을 제시함(이동원, 정갑영, 박준, 채승병 외 2009, 72-73 재인용).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자료

본 논문은 도심 역사문화콘텐츠의 성공적인 활용이 기능적 공동체 형성, 도심 공동화 해소 등의 도심재생 문제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역사문화콘텐츠의 단계별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성원 집단의 다양한 가치인식 및 사회적 관계 변수들 간의 관계, 단계별 작동과 수요형태 및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설문지는 <Table 1>에 나타내었듯이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거주기간, 성별, 혼인여부, 자녀수, 연령 등)을 측정하는 5개 문항,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에 관한 가치인식을 측정하는 10개 문항, 기능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변인을 측정하는 11개 문항,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단계별 변인을 측정하는 9개 문항, 집단 행위변인을 측정하는 6개 문항 등 4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변수의 하위척도별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크론바하 α 의 값을 산출하였다. 역사문화콘텐츠의 가치인식 변인에 대한 신뢰도 값은 0.796, 기능적 공동체 형성 변인에 대한 신뢰도 값은 0.728,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단계별 변인에 대한 신뢰도 값은 0.881, 집단별 행위변인에 대한 신뢰도 값은 0.629로 나타나, 본 논문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내용이 각 변인별 요인을 상당부분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실태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역사문화콘텐츠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대구시민을 모집단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관련, 교과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직접적

으로 참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 지역 거주민, 지역상인 등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확률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표집대상 선정과정에서 난수나 제비뽑기 같은 엄격한 랜덤표집(Random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표집대상 선정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적인 선호를 개입시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준랜덤형 선택방식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과 교사에 대한 자료는 해마다 연초에 결정되는 체험학습 참가 학교와 명부를 활용했고, 학부모의 경우도 학생들과 동행하여 참석한 대상자들 중에서 추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일반시민 또한 도심 역사문화콘텐츠를 경험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서 선정하였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경우, 초·중·고 집단으로 조직화해서 구분하여 표집(층화표집)함으로써 표집오차를 줄여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10일~8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평균값 비교가 필요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매우 중요: 5점, 중요: 4점, 보통: 3점, 중요치 않음: 2점, 전혀 중요치 않음: 1점)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평가 방식으로 기입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은 대구도심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관련, 교과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지역거주민, 지역상인 등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는 270명이었으나,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설문 32부를 제외한 23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 Nunnally(1978)는 탐색적 연구 분야에서는 크론바하 α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봄.

Table 1_ Questionnaire Survey Configuration and Previous Researches

Variable Configuration	Questionnaire	Item Number	Reliability (Cronbach's α)	Previous Researches
Demographic Variables	Residency	5	—	
	Gender			
	Marital Status			
	Number of Children			
	Age			
Value Recognition Variables of Historical -Cultural Contents	Self-Fulfillment	10	0.796	Lee and Park(2014) Park(2015) Lee(2009) So(2004)
	Obtaining Information			
	Personal Economic Gains			
	Collective Learning Opportunities			
	Mutual Aid Activities for Groups			
	Advocacy Activities for Groups			
	Collective Economic Gains			
	Social Norms			
	Social Trust			
	Public Safety			
Building Variables for Functional Communities	Meeting between Members	11	0.728	Lee(2009) Lee, Jeong, Park and Chae et al.(2009) Lee and Heo(2010) Kim(2008) So(2004)
	The Spontaneousness of Meeting			
	Recognition among Members			
	Information Exchange of Members			
	Emergency Contact Networks among Members			
	Talking between Members			
	Personal Life Advantages by Talking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Importance Recognition of Operational Cooperative System			
	The Aid to Regional Development			
	The Need of Network among Residents			
Historical -Cultural Contents' Variables by the Stages of Use	The Value of Development and Excavation	9	0.881	Park and Kim(2012) Ha and Park(2011) Lee and Heo(2010) Lee(2009) So(2004)
	Participation on Development and Excavation			
	Cooperation Will on Development and Excavation			
	The Value of Preservation Research			
	Participation Will on Preservation Research			
	Cooperation Will on Preservation Research			
	The Value of Application and Use			
	Participation on Application and Use			
	Cooperation Will on Application and Use			
Residents' Recognition and Action Variables by Groups	Classification on Use Values of Contents	3	0.629	
	Attention on Historical-Cultural Contents			
	The Importance of Contents by the Stages of Use	3		
	Actions on Juvenile Delinquency			
	Neighborhood for Simple Request			
Actions on Neighbors' Asking (ex. Fire)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44.1%이고 여자 55.9%이다. 기혼이 62.2%이고 미혼이 37.8%를 차지한다. 기혼자 중 자녀가 2명인 경우가 26.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준다. 연령별로는 10대 4.6%, 20대 18.9%, 30대 24.8%, 40대 29.0%, 50대 12.6%, 60대 이상은 10.1%를 차지한다. 대구 거주기간은 1년 미만 4.2%, 1~5년 미만 14.5%, 5~10년 미만 21.8%, 10~20년 미만 26.9%, 20년 이상 32.6%로 나타나 10년 이상 거주비율이 높다. 결과적으로, 표본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변수 설정

본 논문에서 사용할 변수와 측정지표는 <Table 2>

와 같다. 여기서 독립변수로 역사문화콘텐츠를 시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인식을 이용한다. 역사문화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인지하는지에 따라 궁극적으로 비롯될 수 있는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종속변수는 기능적 공동체 형성 및 작동변수들로 파악되는 지표를 이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Table 3>과 <Table 4>의 요인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추출한다. 요인분석 결과 가치인식 변수들은 개인적 가치, 집단적 가치, 공공적 가치 요인들로 대별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기능적 공동체는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공동의 관심과 결속을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및 신뢰관계를 말한다. 나아가 Coleman(1988)의 개념화처

Table 2_ Components of Variables and Characteristics of Indicators

Variables		Components	Indicators
Dependent Variables (Y)	Functional Communities	MIT	Meeting
			Interacting
			Talking
		UE	Understanding
			Empathizing
Independent Variables (X)	Influence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Individual Value	Self-Fulfillment(Self-Satisfaction)
			Gathering Information(Obtaining Information)
			Business(Personal Economic Gains)
		Group Value	Intellectual Ability(Collective Learning Opportunities)
			Volunteer Activities(Mutual Aid Activities for Groups)
			Group Profits(Right Protection for Group)
			Income Generation(Group Economic Gains)
		Public Value	Implementing Commitments(Social Norms)
			Building Trust(Social Trust)
			City Safety(Public Safety)

럼 연결망의 충실성 유무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신뢰 형성에 토대한 공동체라는 의미로 조작적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자주 보고(Meet), 상호 작용하고(Interact), 이야기하면서(Talk) 네트워크를 형성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네트워크가 바탕이 되어 서로 이해(Mutually Understand)와 공감(Empathize)하게 되 면서 공동체로서의 신뢰가 쌓인다는 측면에서 MIT (기능적 공동체 형성변수)기반형과 UE(기능적 공동 체 작동변수)기반형으로 기능적 공동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출발은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이 도심 재생 과정에서 공동의 관심과 결속을 견인 내지 확장 하는 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리고 이때 역 사문화콘텐츠의 활용은 단순히 역사문화콘텐츠를 이 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닌 가치, 기능 또는 능 력을 잘 살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 과 도심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영향으로 개인적 가 치, 집단적 가치, 공공적 가치 등이 부각된 것으로 보 인다. 그 다양한 가치들이 종속변수인 기능적 공동체 형성 및 작동(MIT&UE)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 도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 인적 가치는 자아성취 정도, 정보획득 여부, 개인경제 이득 등의 지표로, 집단적 가치는 집단학습기회, 집단 상부상조, 집단권익보호, 집단경제이익 등의 지표로, 그리고 공공적 가치는 사회적 규범, 사회적 신뢰, 공 공안전성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기능적 공동체 형성 및 작동 변수들은 MIT&UE라는 5가지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MIT는 만남(Meeting), 상 호 작용(Interacting), 대화(Talking)의 정도에 대한 지 표로서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 변수들로 파악할 수 있

다. 그리고 UE는 상대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와 공감(Empathizing)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능 적 공동체의 작동변수들로 파악할 수 있다.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 및 작동을 정태적인 관점에 서 벗어나서 동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어떤 사건이나 실체의 단순 포착보다는, 특정 결과가 나타 나는 일련의 과정이나 흐름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이 형성뿐 만 아니라 작동 측면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 향을 더 정확히 알고자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발·보존· 응용 단계별 주민인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조사하 였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본 논문의 목적과 기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하여 크게 다음 3가지의 연구가설과 2가 지 하위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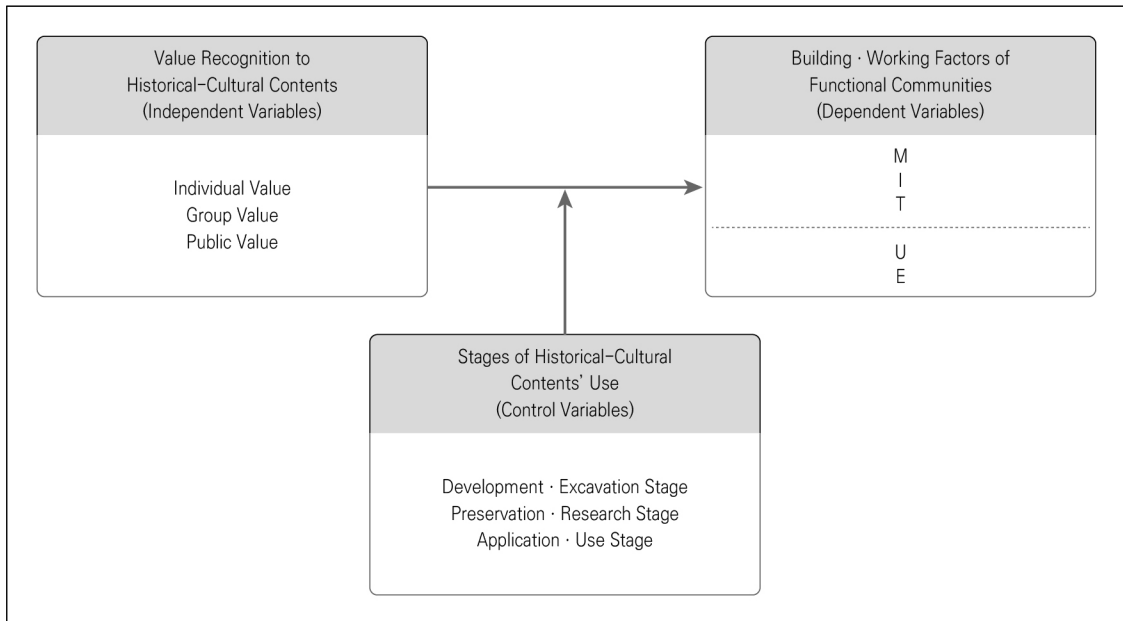
가설 H₁: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가치인식 변인은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작동 변인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H_{1a}: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가치인식 변인 은 MIT기반형 기능적 공동체 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H_{1b}: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가치인식 변인 은 UE기반형 기능적 공동체 작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Coleman(1988)에 따르면 기능적 공동체는 특정 지 역 내에서 종교, 학연, 기타 등으로 형성된 모임과 결 속이 직접적 참여자들 외에도 자녀와 주변인들의 안 전, 복지, 교육적 성취 등에도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

Figure 1 _ Research Model



과 참여에 토대한 공동체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포용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망라하는 외부 지향적 집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utnam 2000, 22-24). 따라서 역사문화콘텐츠를 통해 획득된 가치인식은 MIT기반형뿐만 아니라 UE기반형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과 작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은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이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집단의 기호화 과정이며, 역사적 관점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보전·발전시켜 문화·교육·관광 등이 어우러질 경우 도심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 및 정체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시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권희, 박종화 2014).

가설 H₂: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가치인식 변인의 내용적 특성이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작동 변인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

기능적 공동체는 공동의 관심과 같은 목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능적 공동체의 특징은 문화, 교육, 복지 등 특정 분야에서 만들어진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활용되는 측면으로 이해된다. 즉 공동체 이익을 위해 구성원들끼리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가치나 규범, 역사, 정체성 등의 특정 관습들을 공유, 활용함으로써 공생적 관계를 유지, 강화시켜 갈 것으로 보인다(Granovetter 1973, 1360; 김진아 2014, 116). 그런데 기능적 공동체를 형성·작동하는 원인변수가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가치인식 변인과 같은 경우 그 가치인식의 내용적 특성이 또한 결과 변인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개인적 가치 측면에서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을 바라보는 사람과 집단적 가치나 공공적 가치 측면에서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 및 작동 과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H₃: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 단계(개발, 보전, 응용)별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서 차이가 있다.

현대의 도시들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떻게 도시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글로벌한 환경 변화 속에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 변화와 경제적 요소들 이외에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서 사람과 문화 등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다(변미리 2014, 115). 이제껏 도시경쟁력의 주요 척도였던 소득 등의 경제지표 이외에도 사회적 시스템이나 역사문화적 수준, 도시의 생활스타일 등 도시가 갖고 있는 소프트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은 개발, 보전, 응용 등 세 가지 단계에서 가치, 기능 또는 의미를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단계(개발, 보전, 응용)별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IV. 실증 분석결과

238개의 유효자료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확인된 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크론바하 α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그 도출된 주요 요인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역사문화콘텐츠 주요

가치 인식변수가 기능적 공동체 형성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요인분석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가치 인식과 기능적 공동체 형성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을 통해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가를 점검하였으며, KMO의 표본적합도 MSA를 통해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요인추출을 위해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추출 기준의 고윳값(Eigen Value)은 1.0 이상으로 하여 직교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Table 3>은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가치인식 변인들을 요인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가치인식에 대한 Bartlett의 단위행렬은 3797.302일 때 유의확률은 0.000이고 KMO의 표본적합도 MSA값은 0.735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4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65.7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3개의 주요 요인은 개인적 가치, 집단적 가치, 공공적 가치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Table 4>는 기능적 공동체 형성 관련 변인들을 추출하고자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에 대한 Bartlett의 단위행렬은 5692.578일 때 유의확률은 0.000이고 KMO의 표본적합도 MSA값은 0.694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1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65.2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5개의 주요 요인은 만남, 교류, 대화, 이해, 공감 등으로 포착할 수 있다.

Table 3_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on Value Recognition for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N = 238)

Details	Factor Analysis	Factor 1	Factor 2	Factor 3
		Individual Value	Group Value	Public Value
Self-Fulfillment		0.869	0.165	0.142
Obtaining Information		0.851	0.257	0.044
Personal Economic Gains		0.737	0.377	0.466
Collective Learning Opportunities		0.026	0.845	0.142
Mutual Aid Activities for Groups		0.299	0.816	0.147
Advocacy Activities for Groups		0.222	0.656	0.309
Collective Economic Gains		0.123	0.634	0.264
Social Norms		0.138	0.111	0.816
Social Trust		0.048	0.020	0.710
Public Safety		0.347	0.314	0.685
Eigen Values		3.648	3.144	2.929
Variance(%)		25.433	22.093	18.252
Cumulative(%)		25.433	47.526	65.778
Reliability(Cronbach's α)		0.690	0.652	0.696

Note: Identity Matrix of Bartlett($\chi^2=3797.302$, $df=91$, $p=0.000$)

MSA(Kaiser-Meyer-Oklín)=0.735

Table 4_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on Building Functional Communities

(N = 238)

Details	Factor Analysi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Meeting	Interacting	Talking	Understanding	Empathizing
Meeting between Members		0.791	0.218	0.006	0.274	0.113
The Spontaneousness of Meeting		0.758	0.350	0.192	0.280	0.081
Recognition among Members		0.230	0.766	0.068	0.009	0.257
Information Exchange of Members		0.088	0.748	0.123	0.121	0.207
Talking between Members		0.374	0.074	0.760	0.056	0.126
Advantages by Talking		0.325	0.352	0.628	0.052	0.251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0.210	0.353	0.198	0.634	0.410
Importance Recognition of Operational Cooperative System		0.137	0.204	0.104	0.605	0.308
Aid to Regional Development		0.017	0.251	0.020	0.352	0.782
The Need of Network among Residents		0.285	0.068	0.048	0.259	0.601
Eigen Values		5.098	3.836	3.232	2.761	2.213
Variance(%)		25.096	15.033	10.201	8.237	6.651
Cumulative(%)		25.096	40.129	50.330	58.567	65.218
Reliability(Cronbach's α)		0.728	0.781	0.701	0.628	0.652

Note: Identity Matrix of Bartlett($\chi^2=5692.578$, $df=105$, $p=0.000$)

MSA(Kaiser-Meyer-Oklín)=0.694

2. 회귀분석 및 분산분석

1)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 H₁과 가설 H₂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가치인식 변수들이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5변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5>이다.

<Table 5>에 의하면,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주요 가치인식 변수들, 즉 독립변수들은 예외 없이 사회적 자본 형성·작동 변수들, 즉 종속변수들에 유의수준 0.1% 이하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립변수들 간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β 값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계수의 부호는 개인적 가치의 독립변수가 공감의 종속변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의 값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에 정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개별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의 값은 0.599에서 0.762에 이른다. 따라서 개별 모형들의 설명력의 범위 내에서 가설 H₁과 가설 H₂가 독립변수 하나를 제외하고는 입증되고,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가치인식이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을 개인적 가치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우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작동 과정에서 소위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E(공감)와 부(負)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다양한 가치인식이 수준 역할을 불문하고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작동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MIT&UE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E(공감)단계는 개인적 가치 수준의 인식 정도로는 이를 수 없거나 상충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³⁾

Table 5_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The Effects of Value Recognition for Historical-Cultural Contents to the Functional Communities' Building and Working Factors

(N = 238)

Division	M(Meeting)			I(Interacting)			T(Talking)			U(Understanding)			E(Empathizing)		
	β	T-Value	Significance	β	T-Value	Significance	β	T-Value	Significance	β	T-Value	Significance	β	T-Value	Significance
Individual Value	0.141	3.384	0.001	0.318	7.164	0.000	0.163	4.014	0.000	0.133	2.613	0.000	-0.025	-0.637	0.001
Group Value	0.509	8.559	0.000	0.205	3.232	0.001	0.602	10.405	0.000	0.624	8.599	0.000	0.207	3.709	0.000
Public Value	0.312	4.651	0.000	0.449	6.289	0.000	1.161	17.778	0.000	0.107	1.313	0.001	0.710	11.258	0.000
F-Statistics	211.987 (p<0.001)			177.989 (p<0.001)			227.844 (p<0.001)			116.706 (p<0.001)			250.295 (p<0.001)		
R ²	0.731			0.695			0.745			0.599			0.762		

3) 집단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미약하지만 자아성취 정도, 정보획득 여부, 개인 경제이득 등의 지표로 측정되는 개인적 가치가 종속변수인 E(공감)와 부(負)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응답자가 개인 경제이득에 대한 부분에 높은 비중을 둘 경우, 도심개발제한 등의 정책이 지역사회를 위한 보호정책으로서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사유재산침해 등 개인적 손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할 수 있음.

MIT기반형 기능적 공동체 형성요인들의 경우 다양한 가치인식 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관계이다. 표준화 계수 β 값을 통해서 볼 때, 개인적 가치 수준의 상대적 영향력이 집단적 가치 수준보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T(대화)의 경우 집단적 가치 수준이 개인적 가치 수준이나 공공적 가치 수준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4~5배 높다. 이는 구성원 간 대화 정도나 대화를 통한 개인 생활 도움 정도가 공동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집단적 가치인식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 UE기반형 기능적 공동체 작동 요인들의 경우 U(상대편에 대

한 이해) 측면에서는 집단적 가치 요인이, 그리고 E(공감) 측면에서는 공공적 가치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감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인적 가치나 집단적 가치인식을 넘어서는 공공적 가치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산분석

단일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가설 H₃ 검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보면

Table 6_ Stag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MIT&UE (Functional Communities' Building and Working Factors)

Division	Stages	Freq.	Mean	S.D.	F-Value	P-Value
M	Development & Excavation	61	4.39	0.80	7.327	0.001 (**)
	Preservation & Research	56	3.62	1.36		
	Use & Application	121	3.92	1.09		
	Total	238	3.97	1.13		
I	Development & Excavation	61	3.98	0.90	9.589	0.000 (***)
	Preservation & Research	56	3.60	0.80		
	Use & Application	121	3.41	0.80		
	Total	238	3.60	0.85		
T	Development & Excavation	61	3.88	0.95	21.232	0.000 (***)
	Preservation & Research	56	3.01	0.64		
	Use & Application	121	3.75	0.76		
	Total	238	3.61	0.85		
U	Development & Excavation	61	3.77	0.78	1.035	0.357
	Preservation & Research	56	3.60	0.80		
	Use & Application	121	3.78	0.78		
	Total	238	3.73	0.78		
E	Development & Excavation	61	4.68	0.46	32.581	0.000 (***)
	Preservation & Research	56	3.80	0.40		
	Use & Application	121	4.07	0.75		
	Total	238	4.16	0.69		

Note: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MIT 관련 변인과 UE 관련 변인 모두 평균 3.5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작동 과정에서 MIT&UE 변수들의 중요성에 대한 검증 결과, U(이해)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99% 신뢰수준에서 개발·보존·응용 단계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보존·응용 단계에서의 공통점은 단계별 유의차가 나타난 MITE 중 E(공감)의 변수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그 중요성이 가장 높게 인지되고 있다. 개발, 보존 단계에서는 그 다음 중요성 순서가 MIT순으로 나타난 반면 응용 단계에서는 MTE순으로 중요성이 인식됨을 볼 수 있다. MIT 변수들의 경우 개발 단계에서 그 중요성이 가장 높게 인지되고 있고, E 변수의 경우 개발 단계, 보존 단계뿐만 아니라 응용 단계 모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상대에 대한 공감의 경우 개발 단계, 보존 단계 뿐만 아니라 응용 단계에서도 함께 강화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분석결과와 종합

기능적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관련 시민가치 인식과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크게 3가지의 가설을 설정하고 요인분석과 회귀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통계적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다양한 가치인식과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의 핵심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치인식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가치, 집단적 가치, 공공적 가치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의 핵심요인들은 만남(M), 상호 작용(I), 대화(T), 이해(U), 공감(E) 등의 요인들로 파악되었다. MIT&UE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포착하고 다양한 가

치인식 변수들을 독립변수들로 설정하여 5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Table 5>로 정리되어 있다.

<Table 5>에 의하면, 대략 60~75%의 설명력으로 공감(E)에 대한 하나의 독립변수(개인적 가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가치인식이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차별적으로 미치고 있었다. 즉 15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설 H₁과 H₂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MIT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경우 예외 없이 가설 H₁과 H₂를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E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경우, 그중에서 E(공감)가 종속변수인 경우 개인적 가치 측면은 그 상대적 영향력은 미약하지만 종속변수와 부(負)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E(공감) 관계는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개인적 가치 수준의 인식 정도로는 이를 수 없거나 상충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β 값에 따르면, 개인적 가치 수준의 상대적 영향력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종속변수가 T(대화)인 경우 집단적 가치 수준의 상대적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U(이해) 측면에서는 집단적 가치 요인이, 그리고 E(공감) 측면에서는 공공적 가치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이해와 공감이라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분산분석을 통해서, MIT&UE 변수들의 개발·보존·응용 단계별 중요성에 대한 검증결과 U(이해) 변수를 제외하면 모두 99% 신뢰수준에서 개발·보존·응용 단계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T 변수들의 경우 개발 단계에서 그 중요성이 가장 높게 인지되고 있다. UE 변수들의 경우는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응용 단계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역사문화콘텐츠는 흩어진 기억과 흔적의 소생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묶어 내는 보완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기능적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고찰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과, 가능하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대구 도심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경험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이 기능적 공동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태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공동체 간 비교 또는 회복방안 등 거시적 차원의 함의를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기능적 공동체의 작동 방식이나 속성 등 세부적인 특성이나 작동 방식을 보여 주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역사문화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역사문화 자산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포괄적 분석은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논의는 공동체 해체 등 도심재생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새롭게 부각되는 요소로 보인다.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이 도심재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도심 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점증적으로 강화시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권희, 박종화 2014, 810-811).

우선 역사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시민 가치인식은, MIT기반형 및 UE기반형의 기능적 공동체 형성에 거의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만

남, 상호 작용, 대화 등은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요인으로 파악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 등은 기능적 공동체의 작동요인들로 파악된다. 구성원들 간 자발적 만남, 정보교환, 구성원끼리의 대화 등은 Coleman(1988)이 언급하는 완결형 네트워크의 기저요인들로 파악된다. 이웃 간 소통이나 주민 간 공조 시스템 구축 등의 공동체 간 협력 등은 그 완결형 네트워크의 구체화 내지 실현요인들로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심재생 과정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의미에 대한 정책적 인식뿐만 아니라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작동 과정에 있어서 핵심 요인들과 영향 변수들의 식별 및 포착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시민 가치인식 변수들의 내용적 특성이 MIT기반형 및 UE기반형의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 변수들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가치인식이 개인적 가치, 집단적 가치, 공공적 가치 등 내용 내지 수준 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작동에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MIT&UE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감(E) 단계는 개인적 수준의 가치인식과 부(負)의 관계를 보여 준다. 이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인식 내용별로 그 상대적 영향이 각각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추구하는 목적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대처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과 연계한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작동 요인들은 개발발굴, 보전연구, 이용응용 등 역사문화콘텐츠 활용단계에 따라 그 상대적 중요성 인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을 통한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 요인별 상대적 중요성이 활용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대처 과정에서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작동 요인별 평면적이고 정태적인 대응 노력보다 입체적이고 동태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MIT기반형 네트워크 형성과 UE기반형 신뢰 형성은 기능적 공동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그 가능성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MIT&UE기반형 네트워크와 신뢰 형성은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인식에 연계되어 있고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 단계에 따라 특성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평면적이고 정태적인 인지를 넘어서는 입체적이고 동태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위험에 노출된 이웃에 대한 개인들의 즉각적인 행동은 MIT&UE기반형 네트워크와 신뢰 등이 바탕이 되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일 것이다. 이러한 시민 행위 특성은 기능적 공동체의 실질적인 역할 내지 가능성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특정 시점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소 만나고, 상호 작용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한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전제될 때 가능할 것이다. 동일 맥락에서, 도심재생 과정에서 개발이익의 외부유출 측면, 특정지역 지구 중심적 개발, 수익성에 치중한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권영상. 2011. 면(面)적인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참여 거버넌스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권, 4호: 239-248.
Kwon Youngsang.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n participatory governance for district-base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7, no.4: 239-248.

2. 김미영. 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 이론 27집: 181-218.
Kim Miyoung. 2015. Community realities in high modern society. *Society and Theory* 27: 181-218.
3. 김승현.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권, 2호: 67-88.
Kim Seunghyeon. 2008. An individual-level study on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their relationship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2, no.2: 67-88.
4. 김진아. 2014.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동체주의 이론적 해석: 델파이 방법을 통한 적용가능성 탐색. 국토연구 83권: 113-127.
Kim Jinah. 2014.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communitarianism for maeul mandelgie by the delphi method.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83: 113-127.
5. 류정아. 2006. 전통문화유산의 관광 상품화 과정이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미치는 영향의 비판적 고찰: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5권, 2호: 27-44.
Ryoo Jeungah. 2006. Critical considerations for the identification of a local culture on the process of commod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case of Gangwon-do. *Journal of Social Science* 45, no.2: 27-44.
6. 박병춘. 2012.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공동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권, 4호: 1-26.
Park Byungchun. 2012. Key success factors of local communiti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a case study of local organization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0, no.4: 1-26.
7. 박은실. 2005. 도시 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17권: 11-39.
Park Eunsil. 2005. The study on developments and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cultural policy.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17: 11-39.
8. 박종관. 2013.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사회 자본 형성방안: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11호: 167-175.
Park Jonggwan. 2013. Plan of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for resolving the regional conflict: Focus on the case of Cheona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 no.11: 167-175.
9. 박종화. 2015. 사회적 자본의 분포 불균등성: 처방적 정책논리의 탐색. 한국행정논집 27권, 1호: 1-22.
Park Jonghwa. 2015. The distributive inequality of social capital : An inquiry for prescriptive policy principl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7, no.1: 1-22.

10. 박혜영, 김정주. 2012.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축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권, 3호: 47-66.
Park Hyeyoung and Kim Jungjoo. 2012.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ffecting civil satisfaction and community spirit: Focus on the residents of a local festival.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19, no.3: 47-66.
11. 변미리. 2014. 도시경쟁력과 문화가치. *문화정책* 1권: 115-142.
Byun Miree. 2014. Urban competitiveness and cultural value. *Asian Journal of Cultural Policy* 1: 115-142.
12. 배응규. 2013. 도시와 농촌이 융합하는 재생시대의 생활인프라 확충과제. *국토* 382권: 37-47.
Bae Unggyu. 2013. Expansion of life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fusion and regeneration age of urban and rural areas. *Planning and Policy* 382: 37-47.
13. 백기영. 2013.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동양일보*, 8월 15일, 13.
Back Giyoung. 2013. The change of urban renewal paradigms. *DYNEWS*, August 15, 13.
14. 백선희, 라도삼, 노민택, 김은희, 신호진, 이무용, 진종현. 2008.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서울: 서울연구원.
Back Seonhye, Ra Dosam, No Mintaek, Kim Eunhee, Sin Hyojin, Yi Muyong and Jin Jongheon. 2008. *A Study on the Project of Making a Region through the Arts*. Seoul: Seoul Institute.
15.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권, 1호: 89-118.
So Jinkwang. 2004. Toward developing social capital indicator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6, no.1: 89-118.
16. 신종진, 정지혜. 201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권, 4호: 59-96.
Shin Joongjin and Jung Jihye. 2013. The role and task of maeul-mandeulgi for community rebuilding: Focused on Haenggung-dong, Suwon. *Korean Studies Quarterly* 36, no.4: 59-96.
17. 심승구. 2012. 역사 공간의 복원과 재현을 통한 도시 재생의 의미: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25호: 39-67.
Shim Seungkoo. 2012. The meaning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restora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spaces: Focusing on the Hwaseong Fortress. *Humanities Contents* 25: 39-67.
18. 양영균. 2010. 한국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확산가능성 탐색: 수원 칠보산 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권, 4호: 97-135.
Yang Youngkyun. 2010. The Search for the formation and possible expansion of local communities in Korean urban areas: The Case of the Chilbosan Community in Suwon. *Korean Studies Quarterly* 36, no.4: 97-135.
19. 오동훈, 오근상. 2014. 개발마케팅 실패사례 유형화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7권, 3호: 1-32.
Oh Donghoo and Oh Keunsang. 2014. The study on the typology of development marketing failure cas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7, no.3: 1-32.
20. 이권희, 박종화. 2014. 도심 역사문화 콘텐츠의 도심재생 영향에 대한 시론적 분석: 대구도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6권, 4호: 793-814.
Lee Gwonhee and Park Jonghwa. 2014.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impact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for the regeneration of downtown area: Focused upon the recognition survey of educational programs for Daegu downtown a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6, no.4: 793-814.
21. _____. 2015.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이 도시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경험. *국토연구* 86권: 59-75.
Lee Gwonhee and Park Jonghwa. 2015. The impact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in building social capital of urban residents: The experiences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86: 59-75.
22. 이동원, 정갑영, 박준, 채승병, 한준. 2009.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Lee Dongwon, Jeong Gabyoung, Park Jun, Chae Seungbyoung and Han Jun. 2009. *Rebuilding Trust*.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3. 이승철. 2009. 지역축제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관한 연구: 강원도 동해안 지역 동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Lee Seungcheol. 2009. *A study on social capital formation of local festivals: Focusing on local festivals in the East Coast, Gangwon Province*. Ph.D. diss., Gangneung National University.
24. 이승철, 허중욱. 2010. 어촌지역 전통축제의 사회적 자본 형성: 동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4권, 4호: 5-22.
Lee Seungcheol and Heo Chunguk. 2010. The building of

- social capital in traditional festivals of fishing villages: The case of village ceremon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4, no.4: 5-22.
25. 이은지, 최현선. 2015.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 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84권: 75-94.
Lee Eunji and Choi Hyunsun. 2015. Urban community formation process in the city of Seoul: Case of Seodaemun-gu community building project.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84: 75-94.
26. 이정선. 2001. 콜맨(Coleman)과 브루되(Bourdieu)의 사회자본론의 비교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초등교육연구* 16권, 1호: 91-112.
Lee Jeongseon.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capital theory of Coleman and Bourdieu for the implication of Korean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16, no.1: 91-112.
27. 이지숙. 2008.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심 재생에의 주민참여수법에 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17권, 3호: 533-540.
Rhee Jisook, 2008. The methods of resident participation for community revitalization in civil renaissanc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 no.3: 533-540.
28. 이태중. 2009.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개발 정책방안: 신라문화권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3권, 1호: 235-261.
Lee Taejong. 2009. Policy alternatives of the Silla heritage resources development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3, no.1: 235-261.
29. 전지훈, 최문형, 정문기. 2015. 지역의 공동체활동과 문화 및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코인스트리트, 나가하마, 삼덕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권, 1호: 87-114.
Jeon Jihoon, Choi Moonhyoung and Jeoung Moongee. 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ocal community activity, culture and development: Focusing on Coin Street, Nagahama, and Samdeok-dong.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7, no.1: 87-114.
30.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5권, 2호: 7-34.
Jung Gyuho. 2012. A Study on development process of urban community movement of Korea and the meaning of collaboration model. *Korean Studies Quarterly* 35, no.2: 7-34.
31. 정성훈. 2013. 도시공동체의 친밀성과 공공성. *철학사상* 49권: 311-340.
Jung Sunghoon. 2013. Intimacy and publicness in urban communities.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49: 311-340.
32. 조지현. 2007. 대구지역 근대문화자산의 테마별 활용방안.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Cho Jihyun. 2007. *Daegu Modern Cultural Resources' Use by Theme*. Daegu: Daegu Gyungbuk Development Institute.
33. 하성규, 박기덕. 2011.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서울 아파트단지와 여주 농촌 마을 비교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2권, 4호: 133-153.
Ha Seongkyu and Park Giduck. 2011. Influencing factors in social capital and regeneration of residential communities: Comparative study on housing estates in Seoul and rural village in Yeosu.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12, no.4: 133-153.
34.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35.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no.6: 1360-1380.
36.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37. Nunnally, J. C. 1978. *Psychological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38.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Schuster.
39. Rothman, J., Erlich, J. L. and Tropman, J. E. 1995. *Strategies of Community Intervention: Macro Practice*. 5th ed. Itasca, Illinois: F. E. Peacock.

-
- 논문 접수일: 2017. 1. 4
 - 심사 시작일: 2017. 2. 3
 - 심사 완료일: 2017. 3. 6

요약

주제어: 기능적 공동체, 도시재생, 문화콘텐츠, 사회적 네트워크, 교량형 사회적 자본

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관련 다양한 시민 가치인식과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크게 3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요인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가치인식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가치, 집단적 가치, 공공적 가치 요인들로 대별되었다.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 요인들은 5가지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만남, 상호 작용, 대화, 이해, 공감 등의

요인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가치인식 변수들은 기능적 공동체 형성·작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외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단계별 MIT&UE 변수들의 중요성 차이 또한 거의 대부분 식별되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인식에 대한 유의필요성,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단계별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